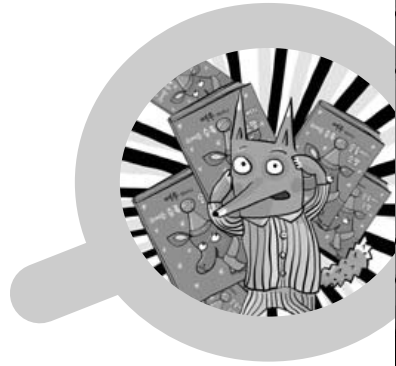


읽고, 먹고, 쓰고, 찾으려~ 책 읽는 능력 길러볼까

●ACC재단 초청전시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책을 다 읽은 여우 아저씨가 '소금 한 줍 톡톡, 후추 조금 톡톡' 뿌려 책을 먹어 버리는 상상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주니어 김영사·프란치스카 비어만 작가 후원
5개 부문 구성...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 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다음달 20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우수 콘텐츠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초청 전시를 개최한다.

주니어 김영사와 독일 아동도서 작가인 프란치스카 비어만(Franziska Biermann)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ACC 어린이문화원에 맞춰 새롭게 기획·제작됐다.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Herr Fuchs mag Bücher!)'는 2001년 출간 이후 14개국에 번역돼 소개되며, 전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내에서만 90만부 이상 판매됐으며 초등 1학년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ACC 전시는 ▲쉬어볼까, 읽어

볼까 ▲책을 맛볼까 ▲거닐어 볼까, 그려 볼까 ▲찾아볼까 ▲씨볼까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여우 아저씨가 책을 읽고, 먹고, 쓰고, 찾아가는 모습을 쫓아간 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고 건강과 휴식을 위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며 읽는 능력을 키우도록 이끈다.

또한 전시에서는 어린이 관객들이 작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 '구구절절' 코너가 운영된다. 이 편지들은 프란치스카 비어만 작가의 다음 이야기인 '책 먹는 여우, 가을 이야기'편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시와 함께 어린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된다.

여우 아저씨의 친구인 '화가 미라의 스



튜디오'에서는 초상화를 그려보고 여우 아저씨 가면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여우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에서는 인공지능 동작인식 미디어로 여우 아저씨가 나의 동작을 따라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어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책 먹는 여우'를 함께 읽고 빵으로 책을 만들어 여우 아저씨처럼 먹어보는 전시 연계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우리 기관은 다른 지역 문화기관의 우수 콘텐츠를 꾸준히 소개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장르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해 지역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문화원은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무진국악대전 국회의장상에 장정순

선대 명인·명창들의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의 저변확대와 참신한 국악 유망주 발굴을 위한 제16회 무진 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국회의장상)에 장정순(사진) 씨가 선정됐다.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이틀간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BBS광주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사)명인명창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판소리·무용·기악 3개 부문에서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 경연이 펼쳐졌다.

심사결과 일반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에 무용부문 장정순 씨가, 학생부 종합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은 무용부문 구세연 학생이 차지했다.

판소리 부문에는 중등부 대상 이예람 학생, 고등부 대상 김한별 학생, 일반부 대상은 주정에 씨가 수상했다.



제16회 무진전국국악대전 일반부 종합대상 국회의장상 2,000,000원

무용 부문 중등부 대상은 정지우 학생이, 고등부 대상은 구세연 학생이 받았다. 기악 부문에서는 최세은 학생이 중등부 대상, 최민 학생이 고등부 대상, 김혜빈 씨가 일반부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에서 경연 종목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됐다. /최명진기자

A Soundscap Of The 21st Century
PANSORI 판소리
24.9.7. ~ 24.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5일 GB토크·8일 심포지엄
...14일부터 어린이 체험활동

광주비엔날레, 연계프로그램과 함께 즐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여작가인 마리나 로젠펠드, 야콥 모두의 울림'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전시기간 동안 밀도 있게 진행된다.

3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전시 주제 및 전시물을 매개로 해석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프로그램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GB 토크' 등이 마련됐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와 작품에 대한 심층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GB토크'는 전시기간 내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포함 총 5회 이뤄진다.

먼저 오는 5일 본전시 참여작가인 캔디스 윌리엄스, 나미라, 김영은, 아몰 케이 파틸, 노엘 W. 앤더슨의 참여로 첫 번째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14일에는 양림동 전시 공간에서 김자이 작가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 '새로운 울림: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기술'은 오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개최된다.

연사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

여작가인 마리나 로젠펠드, 야콥 쿠즈크 스티븐, 성 티우 등이 참여해 본전시와 연계한 소리·기술·문화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학술의 장(場)을 마련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도슨트와 함께 작품을 감상한 후 진행되는 체험이다.

▲나만의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의 판, 소리' ▲생태계 전반을 조망하며 자신과도 연결 짓는 'GB 작은 숲' 등 본전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도 다채롭다.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전시 기간 내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거시기를 등에서 진행된다.

전시해설과 스크립트 작성의 기본을 이해하고, 어린이가 직접 전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도 전시기간 중 매월 1회,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 참여자 모집

광주문화재단, 9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이 2024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광주예술인복지지원사업'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중 하나다. 지역 예비예술인인 향

후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예술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인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원)생 또는 그 외 예술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이다.

본 과정은 3가지로 구성돼 있다. ▲ 예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문 강의 ▲ 예술 현장의 생생한 경험

담을 들을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분야별 현장답사 및 특강)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피치 강의와 저작권 교육이다.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지역 예비예술인을 위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20·21·27일 3차례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예비예술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와 주말 오후 시간대 운영된다.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예비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 참여자 각각 20명씩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 희망 분야는 개인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